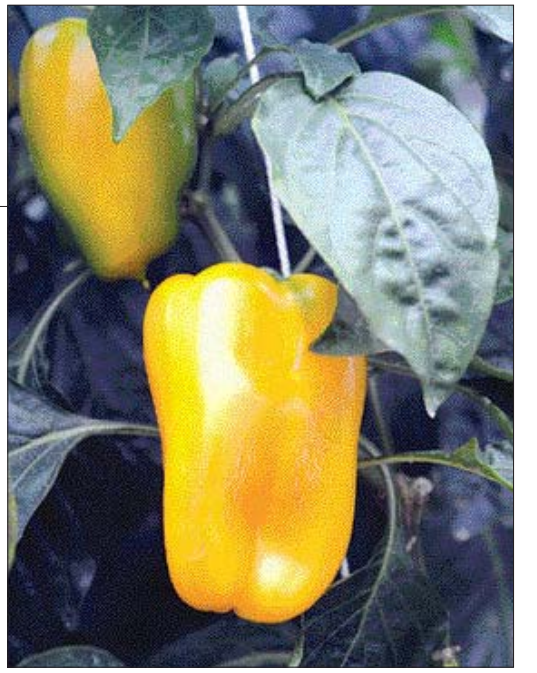


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8 나주 컬러 피망 재배 박종석씨



생산전량 계약재배...年2억 고소득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재배 기술이 좋다는 농가를 직접 찾아 가서 기술도 배웠고, 값싸고 질 좋은 농자재를 사기 위해 전국 농자재 상회를 돌아봤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컬러 피망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박종석(46)씨. 자신의 고향에서 28년째 시설재배를 해오고 있는 박씨는 7천여㎡의 비닐하우스에서 매년 80~100t 가량의 컬러 피망을 수확해 연평균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박씨의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빨강과 노랑, 초록색의 3가지 색깔의 피망은 모두 국내 식품회사로 납품돼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으로 유통되고 있다.

박씨가 컬러 피망을 접한 것은 지난 2002년. 원래 피망 농

박씨의 컬러 피망은 재배시작 단계인 2002년부터 전량 일본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엔고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올 즈음 박씨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서 색깔 채소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면서 컬러 피망에 대한 내수 시장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농산물 유통회사인 (주)후래쉬와 계약 재배를 맺었고, 2006년 이후 수확한 컬러 피망은 모두 이곳으로 납품하고 있다.

특히 박씨와 계약을 맺은 (주)후래쉬 측은 농가 수익 보장을 위해 종묘 분양을 통제하면서 박씨는 홍수 출하 등으로 인해 빛어지는 가격 폭락 등의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박씨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있었다. 최근 2년간 폭등하는 기름값과 농자재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씨는 지난해 연말 큰 맘 먹고 비닐하우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열교환 방식의 중앙집중식 열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이후 기름값이 50% 이상 줄었다. 박씨는 폭등하고 있는 농자재 가격도 감당하기 힘들어 직접 농자재 상회 등을 돌며 값싼 친환경적인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박씨는 농사일도 사업인 만큼 발품 투자와 농사 관련 정보 습득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모든 농자재 가격이 최근 300%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농자재 상을 직접 돌려 살펴보니 아직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좋은 농자재들이 많이 있어 그런 제품들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농정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계절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 제도 등을 운영하면 홍수 출하 등의 문제가 사라지게 돼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난방 시스템 바뀌 기름값 절반 줄여

“농사도 사업 꾸준한 정보 습득 중요”

사를 지어오던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으로부터 컬러 피망 재배 제의를 받았다. 피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시작은 했지만, 박씨는 곳곳에서 난방에 봉착했다.

수확량은 피망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품질도 크기도 크게 떨어졌다. 병충해도 들끓었다. 당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던 일본 종자의 특성을 너무 몰랐고, 컬러 피망 재배 기술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씨는 그때부터 발품을 팔았다. 자신보다 먼저 재배를 시작한 농가를 찾아다니며 재배 기술을 익혔고, 일본 종자 기술자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재배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 지원도 받았다. 컬러 피망 등 원에 교육이라는 관련 교육도 쫓아다니며 이수하는 공을 들였다.

이런 노력 탓에 박씨는 최근 3~4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간 80~100t의 컬러 피망을 재배·수확하고 있다. 박씨의 고소득 뒤에는 전량 계약 재배라는 큰 행운도 한 몫하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박종석·이주명 부부가 23일 자신들의 비닐하우스에서 곧 출하될 컬러 피망을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맛·영양 풍부한 컬러 피망

日·국내시장 선풍적 인기

컬러 피망은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열매채소이며, 대일 수출 및 국내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컬러 피망은 피망·고추와 같은 가지과 식물이며, 60~80g 정도의 무게로 녹색 피망과 달리 완숙하여 먹는 열매채소다. 적색·황색·오렌지색 등이 대표 색이며 자주색·백색·흑색의 색깔도 있다.

컬러 피망은 외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도 녹색 피망과 다르게 쓴맛이 없고 단맛과 약간의 신맛이 조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컬러 피망은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좋은 채소다. 특히 일반 피망보다 비타민 A·C·카로틴이 풍부하며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다.

또한, 컬러 피망은 과피가 얇고 수분함량이 적은 특징이 있어서 일반 피망에 비해 같은 껍데가 나지 않고 조리했을 때에도 씹는 맛이 살아있어 소비자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먹는 방법은 소채의 색을 살린 생식과, 가열조리 등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파프리카의 차이점을 보면 컬러 피망은 개화 후 30~40일 후에 40~100g의 과일을 착색 이후에 수확하지만, 파프리카는 개화 후 60일째 착색된 120~220g의 과일을 수확하고 종량과 모양이 약간 다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나주 남해로 1062-227-9940
총장점: 금곡동 1062-227-9970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2008년 전남지방직 수석합격

이벤트 1: 2차자 합격
이벤트 2: 수석자 합격
이벤트 3: 2차합격자 합격

개강: 3월 2일 (이문반/분재문이반)

동부고시학원 동부강당서 비로동 233-0509

OPEN 축하행식판/매!

1. 2차합격자 2차합격자 2차합격자

2. 2차합격자 2차합격자 2차합격자

3. 2차합격자 2차합격자 2차합격자